

日本 漢方醫學에서 古方派 醫家の 生涯에 對한 翻譯

愼賢揆 · 尹暢烈*

I. 序 論

중국과 한국, 일본 삼개국의 醫家流派들중 일본의 古方派는 일본 근세에 들어오면서 《傷寒論》의 본 고장보다 더 다양하고 깊이있게 다루어졌다.

古方派를 글짜 뜻 그대로 해석하면 古醫方, 즉 張仲景方을 宗으로 하는 학파를 말하는 것으로, 1) 지난 학기에 이어 이들 학파에 속한 여러 古方派 醫家들의 生涯를 알아보고, 이들의 傷寒에 입문한 동기, 《傷寒論》에 대한 평가, 그 후 《傷寒論》에 대한 비평과 古方派의 流派를 탈피하고 새로운 유파인 折衷派나 서양의학 체계로 의학 사상이 바뀌는 일본 특유의 고방파의 學風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內 藤 尚 賢

《古方藥品考》라고 하는 명저를 남긴 內藤尚賢이라고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 문헌을 통해봐도 그 업적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하다.

겨우 《天保醫鑑》에 “內科, 藥品家博學善詩文. 內藤主馬, 剛甫. 藤原尚賢字仲号金陵又朱蕉園○堺町夷川北. 著書, 古方藥品考五冊, 續藥品考全十冊, 備急良方三卷”이라고 되어있고, 또 天保版 《平安人物志》에 “藤尚賢, 內藤主馬, 字剛甫, 号魯齊. 著書, 古方藥性弁”이라고 되어있을 뿐, 생년월일도 사망날짜도 확실하지 않다. 단, 당시 京都에서 상당한 세력가로 궁중출입하는 御典醫였던 것은 쉽게 추정된다. 小野蘭山の 문인록에 그 이름이 보이므로 蘭山에게 사사받은 것은 틀림없다.

제자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古方藥品考》 전5권중 각권의 교정을 薩周, 東都, 勢州, 平安, 浪華의 문인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저서 중 그림은 당시의 京都花壇의 각파의 선생들이 망라되어 그려졌기 때문에, 尙賢의 실력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古方藥品考》은 傷寒論, 金匱要略에 수록된 약물 220여종에 대해, 약 성분, 選品과 효과를 확실히 써둔 책으로,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選品과 삼입그림이다. 選品은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점이 많고, 그림은 사실성이 풍부하며, 江戸말기의 약물 기원을 알게하는데 큰 참고가 됨과 동시에, 일종의 예술작품으로써의 가치도 있다. 마땅히 江戸후기의 대표적 약물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古方藥品考》의 특징은, 현실의 약품이 의료용으로써의 품질평가했다는 면에서, 그리고 당시 시판품을 실제로 언급하고, 치료면에서 그 眞僞와 좋고 나쁨의 영역을 잘 모아서 정리해 둔 점이 의사를 크게 만족시키는 점이다.

이 책은 天保11년(1840년)에 初稿가 완성되었고, 다음 해 간행되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판본은 모두 《增補古方藥品考》이고, 새로 보충되기 전의 판본은 보이지않는다. 아마 《平安人物志》에서 보이는 《古方藥性弁》정도가 母胎가 되어서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

2) 古 矢 知 白

易 사상으로 《傷寒論》을 설명한 이색적인 의사가 古矢知白이다. 知白은 剛齊라고도 불리고, 北總 사람이지만, 사망날짜는 불분명하고, 업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은 거의 알 수 없다. 弘化 3년 경(1846년)에는 생존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서로는 《症因問答》 《古方括要》 《傷寒論正文復聖解》 《傷寒論國字復聖弁》 《正文傷寒論復聖弁》 《復聖正文傷寒論》 등이 있다. 《症因問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日本の漢方ち築いた人, 東京都, 平成 6年, 醫聖社.

2)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答》은 상중하 3권 3책이며, 아들 古矢知往이 弘化4년에 서문을 쓰고, 100部를 한정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문인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치료경험을 기록한 것이고, 등장하는 문인은 20여명으로 지역별로 보면 越中, 北越, 加州, 南越, 上毛, 仙台, 作州, 紀州, 江州, 常陸, 浪花, 備後, 勢州이고, 越中 5명, 北越 4명, 加州, 常陸, 浪花 각 2명이며 그 외는 각 1명씩이다. 그래서 《傷寒論國字復聖弁》을 교정한 穆齊古矢祐는 越中사람이고, 또 치료효과는 加州, 北越, 越中, 越後, 能州 등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의 富山縣부근에서 개업하고 있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지만, 또 浪花에도 문호를 넓힌 것이 《症因問答》에 나오고 있다.

《古方括要》는 洛東의 五溪鼎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문을 썼지만 출판 년월은 불분명하다. 내용은 雜病,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치료에 대한 서술이다. 《復聖正文傷寒論》은 《傷寒論》중에서 111章, 79方을 취해서, 그것을 선현의 문서를 본문으로 해서 弘花 3년에 知白이 서문을 쓰고, 淺井貞甫가 例言(첫머리말)을 썼다. 또 《正文傷寒論復聖弁》은 사본으로 남아있다. 知白의 사망후, 淺井貞甫, 古矢知往 등이 책을 출판한 것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知白은 처음부터 끝까지 易理를 가지고 《傷寒論》을 설명하고, 藥方의 분량부터 煎煮法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설명하는 철저한 성향으로 傷寒의 藥方을 가감없이, 合方도 시키지않고 그대로 사용해 천하의 난치병, 기이한 병을 척척 치료했었다고 전해진다.³⁾

《傷寒論正文復聖解》은 易의 이론으로써 《傷寒論》을 해석한 것이다. 金古景山の 《傷寒論水火交易國子辨》도 易의 世界觀으로써 《傷寒論》을 解說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욱 철저하다. 1942년에 나의 藏本을 토대로하여 복제본을 만들어서 나는 그 때 해설을 썼다. 그래서 이 책은 이미 二卷 六冊本으로서 文久二年에 版이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일본어로 되어 읽기 쉬우나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⁴⁾

3)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3) 和田東郭

折衷派의 봉두로써 一世를 풍미한 사람이 和田東郭이다. 東郭의 이름은 璞이며, 字는 韋郷 또는 泰純이라 했다. 東郭은 그의 號이며 또 合章齋라고도 불린다. 寬保3년(1743년) 攝津高槻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瘍科의 醫官이었다. 東郭은 막내였기 때문에 本道(내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 유소년때, 隣村伊丹의 竹中節齋에게 배움을 얻었다. 거의 성장해서는 戶田旭山の 문하에 들어가고, 26세에는 吉益東洞의 문하인이 되었다.⁵⁾

즉 後世方은 大坂의 戶田旭出에게서 古方은 吉益東洞에게서 학문을 배웠다.⁶⁾

東郭은 처음 二條公으로 임명되고, 寬政 9년(1797년) 御醫(光格天皇 侍醫⁷⁾)가 되었고, 法橋라는 작위를 수여받았다. 2년후에는 尙藥으로 임명받고, 法眼을 수여받았다. 이와같이 의사로써는 최고의 직위까지 올라갔지만, 享和3년(1803년) 61세에 병사하여, 京都 東鳥部の 山에 묻혔다.

吉益東洞에 사사받은 東郭은 東洞이 제창한 古方醫學 학설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古方醫學 수업은 자신의 의학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東洞 이외에 東郭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戶田旭山이다. 旭山은 “의학은 古經方에 의해야만하고, 그 古經方은 傷寒論을 중심으로 해야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東郭이 折衷醫學을 설명하면서, 《傷寒論》을 존중한 것은, 東洞과 함께 旭山으로부터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 東郭은 古方의학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古方에도 많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後世方을 받아들이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東郭은 “모든 질병의 치료는 古方을 주로 해서 그 충분하지못함은 後世方 등을 통해 보충해야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東郭의 사고는 중용을 가진 온화한 치료법이었기 때문에, 크게 세상에 받아들여졌다. 이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이

4)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천, 書苑堂, 1984. pp. 53-54

5)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6)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p.322

7) 石原明, 上掲書 p. 322

어저, 현대 일본 한방의학계도 이같은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東郭은 “말과 문자로 어떻게 마음가짐의 기묘함을 전할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문학생들의 필묵으로, 후세에 넓게 읽히고 있는 《蕉窓雜話》를 비롯해 《蕉窓方意解》 《導水瑣言》 《傷寒論正文解》 《東郭醫談》 《東郭腹診錄》 등이 쓰여졌다. 東郭의 의학은 誠 의학이고 그 기술은 簡精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본 민족 또는 전통적인 일본의학의 성격을 볼 수가 있다.⁸⁾

《傷寒論正文解》 八卷 四冊은 臨床家의 立場에서 分明하게 解説하여 있다. 어려운 考證 등은 일절 省略하고 있다. 일본어로 되어 읽기 쉽다.⁹⁾

4) 內藤 希哲

江戶 中期, 五經을 一貫한 천재 의학자 內藤希哲은 불과 35세로 요절했다.

希哲은 字는 師道라고 하고, 통칭은 泉庵, 元緣 14년(1701년)에, 信州松本村에서 태어났다. 유소년기부터 의학 의술을 좋아해, 동향인 清水선생에게서 의학을 배웠고, 의술이 숙달된 뒤부터는 오로지 張仲景에게 마음을 기울여 《傷寒雜病論》을 숙달하고, 그 깊은 뜻에 정진하였다.

다음으로 傷寒論 연구자들의 저서를 읽은 후 魏晉 이후의 醫書에 차차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內經》, 《難經》을 반복해서 숙독한 후,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 希哲은 유학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강호를 떠나, 醫業을 경영하기를 3년, 그 사이 더욱더 古典을 검토하고 印象에 정통했다. 즉, 古典에 의해 印象을 바로잡고, 印象에 의해 古典을 읽었다. 古典과 印象을 서로 조사해 보니, 표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魏晉이후의 醫經이라 부르는 古典의 내용은 알 수가 없고, 그 때문에 《傷寒雜病論》을 배워도 그 뜻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希哲은 “부단히 노력하여, 중경의 참 뜻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생애의 업으로 삼아 저술을 간행했다. 그 중 하나가 《醫經解惑論》이다.

希哲은 《醫經解惑論》의 교정은 대유학자 太宰

春台에게 의뢰하였고, 春台는 책머리에 서문도 써 주어, 그 顛末을 기록하였다. 希哲은 初稿가 완성 되지도 않은 享保20년(1735년)에 돌연 병으로 죽었다.

春台는 이를 알고 “아 슬픈 일이다! 師道(希哲) 豪傑로 뛰어났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아쉽구나.” 라고 하였다, 한창일 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은 젊은 천재 의학자 希哲의 생애를 애석해 했다. 希哲의 사후 41년, 자식들과 제자들의 손에 의해 이 책은 간행되었다.

또 《醫經解惑論》의 各論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傷寒雜病論類編》도 문인들의 손에 의해 보충 교정되어, 希哲 사후 84년이 흐른후 간행되었다.

希哲의 저서는 강호시대 수많은 《傷寒論》, 《金匱要略》의 연구서중에서 先見을 갖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醫經解惑論》은 1731년에 저술된 것으로¹¹⁾ 上, 中, 下 三冊六卷으로 되어있다. 內藤希哲은 《神農本草經》, 《黃帝明堂經》, 《內經》, 《扁鵲難經》, 《仲景金匱玉函經》을 醫書의 五經이라고 하고 이 五經은 같은 世界觀 위에 선다고 생각하여 이 입장에서 《醫經解惑論》을 썼다. 이와 같이 希哲은 《黃帝內經》, 《難經》 등의 世界觀을 巧妙하게 도입하고 張子和의 儒門에 事師하여 힌트를 얻어 《傷寒論》을 臟腑經絡의 思想에 의하여 해석하는 입장을 取하였다. 이런 意味로써 《內經》과 《傷寒論》을 結付하는 用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장은 日本의 《傷寒論》研究에 있어서는 傍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印象상 계발되는 點은 결코 적지 않다.

《傷寒雜病論類編》은 內藤希哲이 筆을 일으켜서 希哲의 사후, 그의 門人에 의하여 完成하였으므로 《醫經解惑論》을 총론으로 본다면 이 책을 각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十三卷 十二冊으로 되어있다. 《傷寒論》 연구서로서는 特異한 것이며, 印象상에 用을 하는 것이 卓見이 隨處에 보인다. 이 서는 발행부수가 적었다고 보이며 珍本에

8)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9) 大塚敬節, 上掲書 p. 54

10)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11)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8. p. 596

屬한다. 이상의 두 책은 모두 漢文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¹²⁾

5) 北山友松子

大阪의 남쪽, 天王寺區 太平寺에 안치되어있는 北山不動明王에는 燈明(神佛에게 올리는 등불)臺와 향로에 점화와 향연이 끊이지않는다. 이 不動明王은, 元祿시대에 大阪에서 개업했던 韓方醫北山友松子の 化神인 것이다.

友松子는 이름을 道長, 통칭은 壽安이라고 했다. 友松子는 그 號이지만, 다르게 仁壽庵, 逃禪堂 등으로도 불렸다. 아버지는 明나라 사람이며, 長崎로 망명해온 馬榮宇이다. 長崎丸山の 遊女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가 友松子이다.

明부터 承應2년(1653) 長崎에 도래한 僧醫로, 후에 귀화한 黃檗山 万福寺의 隱元禪師의 제자가 되어 ○曼公에게서 사사받았다. ○曼公은 明에 있을 때 晩年에 龔廷賢(《万病回春》의 저자)과 친하게 지내고 감화받은 인물이다. 友松子는, 小倉의 醫師 原長庵에게서도 배웠다고 한다. 한때 小倉侯에도 임명되었지만 얼마안가 그만두고 京都, 大阪에 머무다 결국 大阪町의 기풍이 마음에 들어, 道修谷이라고 불리우는 내(川) 근처로 이사와서 살았다.

醫書를 닦치는 대로 읽어가면서, 치료도 잘 했던 그의 주위에는, 차차 大和나 紀州의 한약재료 도매상이 모여들었고, 그것이 道修町 번영의 기원이 되었다. 사람이 강직하고, 솔직히 말하는 論駁였지만, 의사로서 자신을 다루는 것이 매우 엄했다. 명예와 이익에 구애받지않아, 부자가 신분에 맞지않게 적은 사례를 하면 꾸짖었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약 뿐만아니라, 쌀과 돈까지도 주었을 정도이다.

友松子는 생전에 不動明王의 석상을 만들어 “等身石像, 彌生前是誰, 吾死後是爾, ○斷死和生, 爾吾空也耳, 北山友松子並題”의 문자를 새겨두었다. 元祿14년(1701) 3월 3일에 不動明王像 밑 석실에 틀어박혀, 독경을 하거나 종을 쳤다. 그 종소리가 끊어진 것이 15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날을 忌日로 정했다.

友松子에게는 《增廣醫方口訣集》외에 《北山醫

按》 《北山醫話》 《方考評議》 《醫方大成論抄》 《纂言方考首書》 등이 알려져 있다.¹³⁾

6) 後藤良山

名古屋玄醫의 門弟이다.¹⁴⁾

원래 이름은 達이고 字는 有成이고, 속칭 左一郎이며, 號는 養庵으로 良山은 別號이며 출생은 江戸 常盤橋 부근이다. 일찍부터 林羅山 家族創?의 학교에서 儒學을 배우고 또 한편 佐藤儒人에게서 程頤와 朱熹의 학설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그리고 의술은 名古屋玄醫의 학술이론을 내세우면서 宋金元에서 明清代까지의 醫家들 학설을 탈피하고 동시에 《內經》의 陰陽學說과 臟象理論의 가치를 부인하였다. 당시의 曲直瀾道三流派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病因病機學說을 버리고 ‘氣滯’를 질병의 유발인자로 보아 “一氣留滯論”을 제창하였다.¹⁵⁾

27세에, 江戸에서 京都로 옮겨, 相國寺西의 室町에 거취를 정했다. 이름을 養達이라고 고쳐 의사로 개업. 그 후, 주거를 狩野街로 옮겨 養庵이라 호칭을 바꾸고, 차차 이름이 널리 알려져 禁門町의 正親町으로 옮겨, 여기에서 죽을때까지 살았다.

良山은 다음과 같은 一家言을 세웠다. “百年泰平, 遊惰한 사람은, 腹裏에 전부 癥疝이 맺힌다. 內傷諸疾은 이것에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云云. 대개 百病은, 一氣의 留滯에 생기는 것으로써, 특히 順氣로써 治療의 綱要로 삼는다.” 라고 간파하였다. 그 말하는 바는 명백히, 이제까지 아무도 발표한 적이 없는 의학의 新說이었다.¹⁶⁾ 그의 치료 方劑도 順氣劑를 적용하였다. 그는 醫方復古를 주장하면서 《內經》과 《難經》의 한의학기본이론 및 明清시대에 이미 계통화된 한의학 辨證이론체계를 부인하였다. 이는 復古를 제창한 名古屋玄醫와는 현저히 구별되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¹⁷⁾

13)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14)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p.339

15)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p.49

16)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p. 41

17) 潘桂娟 樊正倫, 上掲書 p. 49

12) 大塚敬節, 上掲書 p.51

한편 그 당시, 의사들은 모두 머리카락을 밀고 승의를 입어 승려의 지위를 얻고 기뻐하고 있었다. 後藤良山은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여 삭발하는 것을 관두고 머리를 길렀다. 이보다 전에, 의사인 向井元升은 처음으로 머리를 묶고 옷을 고쳤다.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舊態依然하여 지금까지의 승려의 복장을 흉내내고 있었다. 하지만, 後藤良山이 삭발을 관두고 머리를 길렀기 때문에 다른 의사도 일제히 그 흉내를 내었다.¹⁸⁾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後藤流라고 부르고, 많은 의사들이 따랐다. 형태면에서도 의업이 불교에서 독립했고, 의사의 사회적 지위확립의 원동력이 되었다.

吉益東洞의 万病一毒說과 함께, 일본인의 손에 의한 病因論으로 일본 의학사에 불멸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一氣留滯說’이다. 즉 百病은 一氣의 留滯에 의해 생존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順氣를 가진 치료를 강요했다. 良山은 古方派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꼭 《傷寒論》만을 중시하지는 않았다. 널리 다른 서책이나 혹은 민간요법 중에서, 실효가 있는 것을 채용했다. 또, 뜸, 응담, 온천을 상용했기 때문에, 세인들은 良山을 “湯煎灸庵”이라고도 불렀다. 良山에게는 저서다운 저서는 거의 없다. 《師說筆記》《東洋俗語》등도 문인들의 編著로 보인다.¹⁹⁾

그는 一氣留滯論을 통해 一派를 이루어 香川修庵, 山脇東洋, 永富獨嘯庵, 北山友松등에 의해 그의 治方이 전승되어 세상에 전해졌고²⁰⁾ 그의 아들 後藤椿庵과 손자 慕庵의 저술서적중에 그의 의학 사상과 치료기술이 간략히 들어있다. 《師說筆記》중에 주요 학술관점과 임상특징이 실려있으며 제자중 香川修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²¹⁾

良山은 享保18년(1733년) 江州伊吹山으로 올라 여행중에 膈噎에 걸려 죽었다. 향년75세, 千本連臺寺 中普門院에 매장되었다.²²⁾

良山은 古方派라고 불리는 江戸중기에 일어난 의학개혁운동의 선구자였다. 다만, 古方派라는 호칭은 그의 門人이었던 香川修庵과 山脇東洋 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각을 가지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良山 스스로도 新革의 선조라고 하는 과장스러운 대접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²³⁾

7) 賀川玄悅

賀川流 産科의 시조이고, 日本 근대 産科學의 기초를 이룬 것이 賀川玄悅이다. 玄悅은 元祿 13년(1700) 江州彦根에서 태어났다. 일명 光森, 字는 子玄이라 불렀다. 아버지 성함은 長高이며, 槍術로 대대로 彦根侯에 임명되었다. 玄悅은 서자여서 祿을 계속받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7세에 집을 나와 어머니 친정에서 길러졌다. 그래서 賀川이라는 성을 붙여진 것이다. 玄悅은 농사를 싫어해서, 鍼灸(침과 뜸), 안마의 기술을 배웠다. 장년(30-40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의학을 공부하기위해 고향을 떠나, 京都에 가서 一貫町에서 살며, 낮에는 古鐵銅器를 팔고, 저녁에는 鍼灸를 해주고 양식을 얻으면서, 독학으로 古醫方을 공부하고 産科를 독학했다. 그 사이에 玄悅은 按針12法을 생각해내었다. 一貫町에서는 이후 8대 玄道가 德島로 이주해서 明治2년까지 약 100년가까이 계속 살고 있다.

玄悅의 많은 독창적 업적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정상태아의 위치 발견이다. 古來, 동서양을 불문하고 태아는 자궁내에서는 머리를 위에, 엉덩이부분을 밑으로 해서 위치해 있고, 진통이 시작 되면 1회전해서 머리가 밑으로 향한다고 생각해왔다. 그것은 잘못이고, 임신중기경부터 머리가 아래로 위치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서양에서는 미국의 産科醫 윌리엄 스멜이고, 일본에서는 玄悅이었다. 두사람은 어떤 연관도 없이 1750년 전후에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玄悅은 《産論》에 이것을 기록하였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읽어도 믿지않았다. 杉田玄白조차도 나중에 스멜의 《解剖圖譜》를 보고, 玄悅의 설이 맞았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이다.

玄悅의 왕성한 실증정신은 많은 신발견에 파급되어, 回生術을 비롯해 11종의 치료술을 발견, 창안했다. 또 《産論》중에서, 古來 널리 慣用되어 온 産椅나 腹帶의 유해성을 역설하고, 옛 악습의 폐지를 주장했다. 玄悅의 업적은 모두 눈으로 확

19)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20) 竹山晋一郎, 上掲書 pp. 39-40

21) 潘桂娟 樊正倫, 上掲書 p.50

22)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23)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18) 竹山晋一郎, 上掲書 p.41

인하고, 손으로 시험한 결과이며, 推論과 想像은 하나도 없다.

玄悅 불후의 저서 《産論》은, 배움이 없어 문장이 유치한 玄悅을 위해 大儒者皆川淇園이 글을 써준 것이다. 때는 玄悅 67세였다.²⁴⁾ 후에 궁중의 御産으로도 초빙되었고, 만년에는 德島藩醫가 되었다. 安永 6년(1777년) 9월 14일, 78세로 사망하였다.²⁵⁾

8) 山脇東門

東門은 일본 해부학의 아버지 山脇東洋의 2남으로, 元文元年(1736) 京都에서 태어났다.(일설에 의하면 1732년생) 이름은 玄侃, 字를 大鑄, 東門 또는 方學居士라고 불렀다. 17세에 아버지 東洋의 명으로 永富獨嘯庵과 함께 越前武生の 奥村良筑 아래에서 吐方을 공부했다. 寶曆 12년(1762) 遺跡을 이어, 明和3년(1766)에 法眼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明和8년(1771) 여자의 시체를 해부하여, 《玉○臙○圖》라 이름붙인 圖譜를 만들었다. 그 후에도 남녀 각 1구를 해부했다. 그래서, 의학을 배우고 익히는데 해부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층 더 통감하고, 맹렬히 그것을 역설했다. 東門의 자식 東海도 자주 인체 해부를 하여, 山脇家は 京都에서 해부의 宗家와 같은 관념을 가지게 하였다. 天明 2년(1782) 47세(일설에는 51세)로 병으로 요절했다.

東門은 汗·吐·下의 古醫方 3法을 연구하고, 또 刺絡法은 吉雄耕牛로부터 배우고, 三陵針을 사용해서 瘀血을 찾는 법을 진보시킨 기원이다.

저서에는 《東門隨筆》이 있다. 당시 한의학계에서는 古方家, 後世家라고 하는 兩派가 있고, 각각 自派의 학통을 주장하며 대립되어 있었다.東門은 兩派에 대해 《東門隨筆》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古方家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뛰어난지 않으면 狂人이 칼을 잡은 것과 같이 무서운 일이다.” “後世家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의 치료는 그것이 완전히 回春流로 回春을 알지못하게 된다.”라고 단정짓고, 古方家の 道가 넘침도 후세가의 溫補도 모두 “人命을 실수로, 病者를 죽음에

이르게하는 것은 平準의 차이로 拙劣하다.”라고 하고, 兩派의 醫風을 심하게 공격했다.

그래서 결론으로, 兩派의 장점을 절충하고, 효과가 있는 것은 민간약이건 무엇이든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병에 古·今이 없다면, 방법에도 古·今이 없다.” “모든 치료는 근본을 찾아서, 그 힘씀의 여하와 정밀하고 세세하게 이유를 밝힌 후, 투약을 해야한다. 그만큼 공을 쌓는다면 精妙하게 되어 良醫라고 일컬어질만하다.” “卒倒卒死한 사람은, 대부분 이전부터 어깨가 빠근한 자이다.” 등 귀중한 片言들이 새겨져 있다.²⁶⁾

9) 永富獨嘯庵

한방 중흥의 영웅 吉益東洞은 “陰으로써 한 나라와 같은 것은 獨嘯庵, 나 죽으면 이 사람 때문에 海內醫流가 첫제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한 永富獨嘯庵의 생애는, 거의 35년의 짧은 생이었다.그러나 과란만장하고, 國手로서 古醫道에, 西洋醫學에, 儒學에, 또는 禪에, 열정과 탁월한 식견을 나타낸 그의 명성은, 일본의학사상에 찬란히 빛나고 있다.

獨嘯庵은 이름은 鳳介, 字를 朝陽이라고하고, 長門國(山口縣) 豊浦에서 향보 17년(1732)에 태어났다. 유년시기부터 神童이라고 알려졌다. 13세 때, 赤間關 醫師 永富友庵의 양자가 되었다. 14세때 荻生徂徠의 高弟 山縣周南에게 충애를 받아, 周南의 소개로 江戸로 나갔다. 服部南郭, 太宰春台的 가르침을 받으면서, 幕部の 奧醫師 井上元昌에게도 師事받았다.그런데도 그는 마음이 儒學으로 끌리고, 썩어들어가고 있는 의학계에 분개하여, 의술을 싫어해 赤間에서 귀향했다.그러나 醫業은 仁術임을 알리는 名醫, 香川修庵, 山脇東洋이라는 사람이 京都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달려오게되어 19세 때 京都로 나왔다.

山脇東洋의 塾으로 입문하고, 古醫方인 한방의 학과 근대의학의 해부학을 배우고, 또한 東洋의 명을 받아 越前武生の 奥村良筑에게 吐方을 배웠다.그 후 長崎에서 吉雄耕牛의 문하에 들어가 참신한 서양 의설을 배우고, 31세에 大坂으로 와서 개업했다. 그리고《吐方考》《叢語》《漫遊雜記》

24)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25) 石原明, 上掲書, p.323

26)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등의 명저를 잇달아 출판했다.

의학계에서는 《鬼語仏心》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獨嘯庵은 언행에서는 가식없이 말을 하고, 자유분방, 당당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중에서도 큰 인간애를 느끼게 하는 '鬼語仏心'과 '醫○의 心'이라고 하는 명리의 이념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또 당시 겨우 인체해부를 시작했을 뿐인 일본에서, 이미 병리해부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의학에 이익을 주는 점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었다. 시류를 앞지르는 높은 식견, 예리한 통찰력은 경탄스럽다. 유감스럽게도 선천적인 蒲柳의 질과 무리 때문에 寒疝(비뇨기계 결핵성질환)을 앓아 明和3년(1766)에 세상을 떠났다.²⁷⁾

의학학술사상은 "實證新識"을 주장하고 張仲景 학술을 숭상하였다. 저서로는 《吐方考》, 《養語》, 《漫遊雜記》등이 있다.²⁸⁾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經世學에도 능했다. 그의 저서로는 《?瘡口訣》, 《論傷寒論》, 《葆光秘錄》등이 있다.²⁹⁾

10) 目黒道琢

目黒道琢은 近世 일본의학에서 考證學派를 일으킨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道琢의 분묘는 牛込市 谷月桂寺에 있다. 柳澤吉保등의 묘도 남아있는 큰 유서있는 절이다.

多紀元簡撰 墓碑文에 의하면, 道琢은 위를 尙忠, 字를 恕公, 혹은 道琢이라 하고, 飯溪라고 불렸다. 성은 目黒氏이고, 奥州 會津 사람이었다. 젊어서 江呼로 나와, 의술을 행했다. 道琢의 치료는 자주 기이한 효과를 가져왔기때문에, 江呼 사람들은 道琢을 扁鵲이 환생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道琢의 학구 자세는 매우 열심 그 자체로, 그 근면 정도는 늙어서도 조금도 수그러들지않았다. 典籍類는 전부 奧義를 연구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校勘學에는 탁월했다. 明和2년(1765) 醫學館이 창건되었을 때, 道琢은 강사진의 1사람으로 초빙되었다. 道琢은 醫學館 창건시부터 醫經을 강의하기를 14년, 1년도 휴강을 한적이 없었다. 안타깝게도 寬政10년(1798)에 병사했다.

道琢은 會津野老澤 村의 長으로, 目黒伊右衛門

의 2남으로, 어려서부터 神童이라고 주목받았다. 성인이 되어 홀연히 마음을 일으켜 "어떻게 해서든 나는, 백성과 같이 농기구를 가지고 일생 밭을 경작하고, 늙어서 뼈가 앙상하게 되어 산간벽지에 뼈를 묻는 것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책 상자를 깊어지고 江呼로 온것이다.

道琢의 生年·享年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지만, 目黒家에서 전해지는 가계도에서는 元文 4년(1739) 3월10일생으로 되어있고, 忌日は 寬政10년(1796) 8월30일로 향년 60세로 되어있고, 이것이 거의 확정적인 생년월일과 기일이라고 생각된다.

道琢의 저서로 대표적인 것은 《餐英館療治雜話》 《麗家醫言》이 있다. 모두 未刻本이다. 《餐英館療治雜話》은 《傷寒論》, 《金匱要略》의 처방, 또 唐宋이후의 本朝 經驗方 및 丸散處方, 여러가지 병의 區別, 口訣, 經驗, 藥들을 발췌한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운용가치가 높다.

《麗家醫言》중에는 의약관계 기술을 발췌한 것이다. 《雪菴醫言》은 道琢이 잊지않기위해 속기한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奇方靈劑가 수 백가지 기록된 것으로, 가장 효험이 있는 것은 《麗家醫言》으로 발췌되었다.³⁰⁾

11) 中 神 琴 溪

독학으로 古方派의 의학을 공부하고, 疾醫의 道에 철저하여 大醫의 영역에 이른 琴溪는, 특이한 名醫였다. 琴溪는 이름은 孚, 통칭 右内, 字를 以隣이라 하고, 金溪라고도 불렸다. 寬保4년(1744) 近江國 栗太郡 南山田村의 眞宗書念寺의 2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膳所의 糶屋某의 양자가 되었지만, 후에 大津의 醫家中神氏의 가업을 이어 의사가 되었다. 30세 때, 六角重任의 《古方便覽》을 보고 감격해서 그것으로 인해 분발해서 吉益東洞의 저서를 숙독하고, 東洞의 사상에 크게 공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大津에서 가까운 長等山の 摩에서 살고, 그 사이 大津의 宿場女郎의 매독치료에 輕粉을 자주 사용해서 치료하여 치료경험을 쌓았다. 寬政3년(1791) 48세에 京都로 옮겨 개업을 하고,

28) 潘桂娟 樊正倫, 上掲書 p. 55

29) 金斗鐘, 上掲書 p. 339

30)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27)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크게 번창하였다. 그 후 강호로 놀러가고,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후, 近江의 田上에서 칩거하고, 또 南山城, 宇治 附近의 有王村으로 옮겨 뽕나무와 차를 키우며 즐겁게 살았다고 한다. 마지막에 鄉里山田村으로 돌아가, 天保 6년(1835, 일설에 의하면 天保 4년) 92세로 죽었다.

金溪는 의술을 배우는 데는 師○보다 직접 口傳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金溪 자신도 스스로 책을 쓴 적이 없었지만, 문인이 師○의 강의를 필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몇 편이 있다. 현재 金溪의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生生堂醫譯》《生生堂雜記》《生生堂治驗》《生生堂養生論》등이 있다.³¹⁾ 그리고 《生生堂中神家方書》가 있다.³²⁾

金溪가 의학에 대해 추구했던 근본 이념은 “의술은 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그러니 규정에 구애받지않고, 항상 임기응변의 치료를 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까지의 학설, 즉 규정을 파괴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金溪가 문인에게 가르친 제일은 “사실을 숭상하여, 실학을 배운다.(重事實, 學實學)”라고 한 것이다. “의학은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라는 이 말 한마디야말로, 金溪의 初志이고, 終局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門人중에서 후세에 이름을 남겼던 사람은, 저서로 《吐方論》을 쓴 喜多村良宅이 있다.³³⁾

12) 山田正珍

山田正珍은, 《傷寒論》연구자들의 필독서인 名著 《傷寒論集成》을 남기고, 39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英才이다. 考證의 명문이며, 古今의 여러 설과 치료경험을 섭렵해서 감안한 뒤, 치료방법을 결정한 뒤, 주장하는 折衷派에 속하고, 오히려 그를 일컬어 正中에 正이며 後藤良山 流라고 추측하기도 한다.그러나 그의 학술을 多紀一派와 동일하게 논해서는 안된다. 그는《傷寒論》을 존중하고, 서양 의학에 눈을 돌린 똑같이 건강에 뛰어나지않고 요절한 永富獨嘯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또 獨嘯

庵을 私叔(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아니하나 스스로 그 사람의 덕을 사모하고 본받음)으로 여겼다고 생각된다.

山田正珍, 성은 菅 혹은 山田, 이름은 正珍, 字는 玄同, 또는 宗俊, 圖南이라 부른다. 書齋를 杏花園이라 했다. 幕府 醫學館에서 《傷寒論》을 강의한 正珍의 집안은, 대대로 막부의 醫官이었던 江戸 昌平橋였다. 正珍은 寬延2년(1749, 일설에는 1731)에 태어났다. 조숙한 영재로 알려졌으며, 집안에서는 할아버지때부터 전해온 일만권의 서적이 있었고, 머리가 좋아 학문을 좋아했다고 하며, 그 박식함은 소년같이 았았다고 한다.

正珍은 玉曆14년(1764), 16세 소년으로 조선 사절로 면접을 보고, 시문응답을 교환했을 정도였다. 그 필담은 《桑韓筆語》 1권으로 남아있다. 그 첫머리에, 아버지의 동료 村岡醫官은 “同僚山田씨의 아들 宗俊, 나이 근 16세, 風神秀朗, 學術○成”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正珍은 儒學을 山本北山, 素靈學은 加藤筑水, 本草는 田村藍水에게서 배웠다. 正珍이 사는 동안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傷寒論》 연구였다. 말년에 醫學館에서의 그의 강좌도 《傷寒論》이었다. 明의 方有執은 傷寒論의 해석에 있어, 그 이전의 相傳·訓話만을 중점으로 둔 註譯 태도를 비판하고,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에서 비판적 태도로 傷寒論을 대한 사람은 正珍과 中西深齋였다. 그 결정이 《傷寒論集成》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그의 명확한 주장이 들어있다. 그의 醫論으로 통렬한 비판을 전개한 것이다. 곳곳에서 천재의 번뜩임이 보인다. 그 외, 正珍에게는 《傷寒考》《天命弁》《新論》《權量探亂》등이 있다.³⁴⁾

《傷寒論集成》은 十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書의 註釋과 《辨太陽病脈證并治上》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脈證并治》까지의 各條에 대하여 解說하여 있다. 이것은 《辨正》과 달라서 中國 및 日本 先人の 說을 많이 인용하였다. 또 正文과 後人の 追論과의 區別을 分明히 하기위한 努力이 들어 있다. 이것도 漢文이지만은 訓點이 붙어 있는

31)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32) 潘桂娟 樊正倫, 上掲書 p.54

33)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34)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므로 읽기 쉽다. 《傷寒考》一卷이 있다. 이 책은 《傷寒論》에 관한 考證이며, 啓發되는 곳이 많다. 漢文인데 訓點이 붙어있다.³⁵⁾ 1779년에 저술하였다.³⁶⁾

天明7년(1787) 폐가 나빠, 39세로 병사했다.³⁷⁾

13) 多紀元簡

江戸시대 일본 한방의학의 우의를 접하며, 醫學官을 창립하여 제자를 가르치고, 稀類書を 校刊하고 중요문헌을 考證整備한 多紀家 累代의 대업적은, 일본 의학사상 일대 偉觀이다. 그 정점에 서서 考證學派를 대성한 것은, 7대 多紀元簡과 그의 아들 元堅이다.

元簡은 의학을 아버지 元應에게, 經書는 井上金峨에게서 배웠다. 어려서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기억력이 뛰어났다. 35세때, 執政松平定言이 元簡을 불러서 醫事를 試問하였지만 元簡은 막힘없이 醫事 30조를 명확히 분석하여 定言을 크게 경탄하게 하였다. 그래서 定言은 元簡을 奧醫事를 시키고, 侍醫로 뽑히고 法眼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이어서 元簡은 아버지 원혜가 주재하는 醫學館督事に 취임하고, 40세때 御匙見習이 되었다.

寬政11년(1799) 元簡은 장남이어서, 將軍 家齊의 侍醫御匙가 되었지만, 2년후, 醫官詮選에게 시비가 걸린 불화때문에 奧醫事에서 파면되고, 寄合醫師로 좌천, 100일의 屏居(몰려남)를 명받았다. 그 사이, 元簡은 옛 책을 다듬거나 《醫牘》의 編述(문서를 모아 엮음)을 하고, 오로지 후진을 양성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겼다. 文化 7년(1810) 다시 奧醫事に 임명받았지만 御匙가 되지않고, 그해 급사했다. 향년 56세였다.

元簡의 업적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의학사에서 考證學派로써의 업적, 그 두번째는 醫學官의 주재자로써의 후진의 지도, 세번째는 古典 校刊사업, 그리고 네번째는 왕성한 저작활동이다.

元簡의 저서는 매우 많지만, 대표적인 것은 《傷寒論輯義》《金匱要略輯義》《親聚方要補》《素問識》《靈樞識》《脈學輯要》《醫牘》등이다. 그리고 《襟窓類鈔》등이 있다.³⁸⁾

《傷寒論輯義》는 傷寒論의 각 조에 대해 중국에서 諸家의 주역을 集錄考證한 것으로, 넓게 중국의 여러 설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 《親聚方要補》는 隋,唐,金,元,清에 이르기까지 212편에 이르는 方書부터, 病種類別로 유효,처방을 집대성한 것으로, 醫家의 상용처방집으로 필독서이다.³⁹⁾

《傷寒論輯義》는 十卷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辨太陽病脈證并治上'으로부터 '辨陰陽易差後勞復病脈證并治'까지의 各條에 대한 解釋이며, 中國에서 지어진 有名한 著述에서의 引用이 大部分이고 자기의 見解를 확실히 내세우지 아니하였으므로 不足한 點도 있으나 獨斷이 적고 穩健하여 名著임에 遜色이 없다.한문이며, 訓點이 붙어있다.⁴⁰⁾

14) 多紀元堅

江戸시대 후기, 幕府 醫學館 督事로서 運營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多紀家 중에서, 그 업적이 뛰어난 巨擘으로써,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물은 菴庭 庭多紀元堅이다. 元堅은, 字를 亦柔, 號는 菴庭을 號로 하였다. 幼名은 網之進, 커서는 安叔으로 불렸고, 寬政7년(1795) 元簡의 5남으로 江戸에서 태어났다.

多紀 본가는 3남인 元亂이 있었기때문에, 元堅은 분가했다. 天保2년(1831) 37세에, 처음으로 醫學館의 講書를 명받았고, 4년후, 奧詔醫師가 되었고, 매월 1회 장군 家齊의 진찰을 명받았다.

天保7년(1836) 奧醫師가 되고, 家齊의 은퇴로 西丸附가 되었고, 法眼(法眼大和尚位)의 준말. 중세 이후 승려에 준하여 의사 화공 유생에게 내린 지위. 다음 지위는 法印)을 거쳐 天保11년에 法印에 올라, 樂眞印이라고 불려졌다. 弘化 2년(1845), 51세 때, 장군 家慶의 御匙가 되고, 대지를 빌리고, 浜町元矢의 창고로 옮겨, 嘉永6년(1853) 印號를 樂春院으로 고쳤다. 향년 63세로 安政4년(1858)에 죽었다.

元堅의 저서와 校刊事業은, 특히 醫學館의 명성을 높였고, 일본 의학사상 불멸의 事業으로 현재

36) 劉渡舟, 上掲書 p.596

37)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38) 金斗鐘, 上掲書 p.340

39)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40) 大塚敬節, 上掲書 p.49

35) 大塚敬節, 上掲書 p.49

남아 있다. 저서중 대표적인 것은, 《傷寒論述義》《金匱要略述義》《雜病廣要》《樂治通義》《時選讀我書》이다. 校刊事業은 뛰니뛰니해도 半井家秘藏의 《醫心方》校刊이 빛난다. 그것은 元堅과 본가의 多紀元○가 총망라되어 있고, 당시의 江戸醫學館의 고증학자를 총동원해서 覆刻한 것이다. 또, 《備急千金要方》도 校刊되었다.⁴¹⁾

그의 저서로서는 《傷寒廣要》, 《素問紹識》, 《樂治通義》, 《名醫集論》, 《時選讀我書》, 《同統編》, 《服診佞》,⁴²⁾ 《女科廣要》⁴³⁾ 등이 있다.

《傷寒論述義》는 全五卷外에 《傷寒論述義補》이 붙어 있어서 二冊 또는 三冊으로 되어 있다. 《傷寒論》의 綜說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卓見이 많다. 漢文이고 訓點이 붙어 있다.⁴⁴⁾

元堅은 아무리 어려운 집에서 치료를 요청해도 즐겁게 응했다. 그래서 약을 무상으로 줄뿐 아니라, 여름에는 모기장을, 겨울에는 이부자리를, 또 貧窮의 정도에 따라 돈까지도 주었다고 전한다.

元堅은 曲直瀨玄朔 16조 중 제11조에서 “귀천에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병자를 내 몸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 등등”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은 듯하다. 자신의 저서 《時選讀我書》하권에 “延壽院玄朔의 유언은 매우 친절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진짜 篤志家라고 생각된다. 가난하고 천한 질병도 의지를 가지면 치료할 수 있고, 군주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감복할만하다.”라고 쓰여 있다. 元堅은 玄朔에게 뒤지지 않는 인술을 베풀었다.⁴⁵⁾

15) 有持桂里

有持桂里는 명저 《方輿輓》저술가로 뛰어난 인물이다. 桂里는 이름은 希藻, 字는 文磯, 常安이라고 불렸다. 號는 桂里, 또는 ○春園이라고도 한다. 阿波 사람이며, 玉曆8년(1758)에 태어났다. 19세에 京都에 올라와, 醫學을 三角法眼에게 3년간 배운 뒤 개업했다. 三角法眼은 《京都醫學史》에 의하면, 三角了敬의 자식이며 禁裏 醫官이 되었고, 法

印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桂里의 개업은 성황을 이뤘, 진료를 청하는 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文化 9년(1812) 知恩法親王의 侍醫가 되고, 法橋로 임명되었다. 寬政 말년부터 享和 초까지 1800년경에 板行된 醫師番付에서는, 동쪽 대관에 和田東郭, 서쪽 대관에 荻野臺洲가 올라 있다. 또 小結에 三角了敬(桂里의 師父)이름이 있고, 앞머리 3번째에 有持桂里가 있다. 또 앞머리 10쪽에 中神琴溪, 20쪽에 産科의 賀川玄悅의 이름도 보인다.

桂里의 학풍은, 折衷派라고 할 수 있다. 이 학파는 처방의 運用을 극명하게 추구하고 있다. 和田東郭, 百百漢陰, 山田業廣, 淺田宗伯등도 동일한 입장의 사람들이고, 현대 일본 한방은 折衷派의 귀중한 경험을 계승하고 있는 면이 많다. 桂里는 《校正方輿輓》題言에 “傷寒論은 經方이므로 여기에서 治療원칙을 배우고, 方劑는 일본이나 중국의 많은 서책으로부터 취해 不備된 부분을 보충하여, 좋은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해야 할 것을 모두 해내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桂里의 학풍은 和田東郭이 “모든 질병의 치료는, 古方을 주로 하고, 그 모자람을 後世方 등으로 보충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동일하다. 《方輿輓》는 桂里의 저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며, 최대의 책이다. 方輿라는 것은 藥方을 실는 수레라는 의미이며, 輓이라는 것은 수레의 선두에 횡목을 붙이기 위한 작은 췌기이다. 그것은, 수레를 나아가게 하는 의미이며, 機活六訣 즉, 方劑 活用の 속 뜻인 것이다. 이 책을 八谷子良이 필기를 하고, 교정해서 간행한 것이 《校正方輿輓》이다. 桂里는 天保6년(1835) 서거. 그의 나이 78세였다.⁴⁶⁾

16) 稻葉文禮

《復證奇覽》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이 稻葉文禮이다. 文禮는 생년월일도 출생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름은 克, 통칭을 意仲, 湖南이라 불렀다.

그의 선조는 河野七郎에서 나와, 대대로 江洲

41)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42) 石原保秀, 上掲書 p.279

43) 金斗鐘, 上掲書 p.341

44) 大塚敬節, 上掲書 p.49

45)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46)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滋賀縣)의 菩提寺에서 살았다. 文禮는 어려서부터, 양친과 헤어져 고아가 되었고 커서는 방탕무뢰한 무리들과 어울려 京坂(京都와 大坂) 사이를 오가며, 온갖 나쁜 짓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말에 감동받아 의사가 되고자 결심했다. 그러나, 학문을 한적이 없기 때문에 “눈은 책을 알지못하고, 귀는 글을 듣지못한다.”는 문맹이었다. 그래서 각지의 명의들을 방문하였다. 그 이유는 서책을 읽지않고도 의사가 되는 방법으로 돌아다니며 방문했던 것이다.

각지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鶴泰榮이라고 하는 名醫를 만났다. 泰榮은 出震 출신이며, 吉益東洞의 문인은 아니지만, 東洞을 존경하고, 古方을 연구한 腹診의 명인이었다.

天明6년(1786) 文禮는 《腹侯弁略》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는, 胸脇苦滿, 心下痞硬이라고 하는 腹證이 어떤 형상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때, 文禮는 여러나라를 돌아다니고, 江戸에 돌아와 京橋에서 살았던 것 같다. 寬政4년(1792) 文禮는 甲州로 놀러가서, 永田德本の 遺著인 《德本一十九方》을 손에 넣어, 德本秘方을 얻고 기쁘게 돌아오는 도중, 和久田叔虎을 浜松에서 만났다. 그래서 의기투합하였으며, 20년만에 동지로 만나서 기뻐했다고 한다.

寬政7년에 文禮를 京都로 옮기고, 門人 關完俊이 대필해서 《腹診圖○》를 썼다. 寬政 12년에는 門人에게 口述을 하는 것을 筆記시켜 《腹證奇覽》4권을 썼다. 이 책은, 和久田叔虎의 《腹證奇覽翼》과 함께, 일본에서 傷寒論系의 腹診류 중 대표적인 문헌이다.

文化2년(1805) 文禮 叔虎에게 후사를 맡기고 浪花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⁴⁷⁾

17) 中川 修 亭

中川修亭은 吉益南涯의 동생으로, 古方의 대가이지만, 後世方에도 이해를 가진, 또한 華岡青洲를 친구로 하고, 外科 簡方에도 통달한 명의였다.

修亭은 이름을 故, 또는 定故라고 하고, 字는 其德, 號는 壺, 또는 壺山, 통칭은 周貞, 자주 修亭이라는 字를 사용했다. 그의 抱神堂 주인이라도 불렀

다. 修亭은 明和8년(1771) 京都에서 태어났다. 天明8년(1788) 京都의 큰 불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郷里 近江으로 돌아온 아버지와 헤어져 紀州로 가서, 華岡青洲 밑에서 들어갔다. 이것은, 青洲가 京都 修學시절부터 修亭과 교류했기 때문에, 修亭은 옛 친구를 믿고 紀州로 갔던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된다.

또, 修亭은 紀州에 있는지 수년 후에 京都로 돌아와, 古醫方의 吉益南涯의 門人이 되었다. 그래서 修亭은 吉益流의 古醫方 연구에 精進하게 된다. 저서 《眞庵漫筆》에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海 내에서 명의라고 칭해졌던 것은, 南涯翁, 中神琴溪翁, 和田東郭翁, 富野玄達 4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도, 修亭이 얼마나 南涯를 존중하는지 알 수 있다. 修亭은 南涯 사망후, 자신의 기록을 원본으로 하여 南涯의 治驗錄을 모아 《成績錄》을 썼다. 또한 卷末에는 《南涯先生 六十壽序》를 붙여 “南涯선생의 덕을 아는 자가 날마다 적어지는 것을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쓴다.”라고 썼다.

文化 2,3년 경, 海上隨鷗가 京都에 와서 蘭學塾을 열었기 때문에, 修亭은 그 門下에 들어가 蘭學을 조금 배웠다. 隨鷗의 門人帖에 의하면 “文化 3년(1806) 9월 上旬 浪華中川修亭故”라고 되어있다. 때는 修亭 36세였다. 修亭은 뛰어난 臨床家였다는 것은 《成績錄》과 《險証百問》외에 《眞庵漫筆》등에 의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古醫方을 존중했던 점은 확실하지만, 실제 臨床에서는, 後世方도 존중했던 것이다. 또 外科도 잘 보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修亭이 驅梅用 水銀劑製造를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修亭은 嘉永3년(1850) 80세에 죽었다.⁴⁸⁾

《修正傷寒論》과 《傷寒全論》을 저술하였다. 《修正傷寒論》은 全四冊으로 지었으며, 第一冊目은 南涯의 《傷寒論章句》에 準하여 節로 나누고 第二冊과 第三冊으로써 考證을 하였으며, 第四冊에 藥方을 실고 있다. 또 修亭의 著에 《傷寒全論》이라는 銅版의 冊本이 있으나 이것과는 別冊이다.⁴⁹⁾

48)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49) 大塚敬節, 상계서 p.56

47)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18) 和田元庸

和田元庸은, 吉益南涯 門下の 천재였다. 元庸은 號를 峰州, 峰州園이라고 했다. 사망날은 불분명하지만, 저서 《三世醫譚》에 의해, 추정 가능하다.

이 추측은 “25세 때, 京都로 가서 和田東郭의 문인이 되려했다. 그런데 京都에 도착해보니, 東郭은 이미 서거했다.”고 하는 부분에서이다. 東郭은 1803년에 죽었으므로, 元庸이 京都에 도착한 것이 그 1, 2년후라고 추측하면 元庸의 생년은 1780년(安永9年) 전후가 된다.

《三世醫譚》에 의해, 그의 생애도 어슴푸레하게 알 수 있다.元庸은 奥州 盛岡藩 遠野 사람이다. 집은 대대로 의사를 했고, 적어도 3대는 계속되었다고 생각된다.

15세 때 仙臺로 유학해, 小山玄水를 따라 학문을 했다. 동시에 梅津元泰에게 입문해서 의학을 배우고, 5년 뒤 귀향한 후, 동북 각지를 수 년에 걸쳐 두루 돌아다녔다. 또 元甫에게서 李朱醫學을 배웠다. 그 후 宮古港에 갔다오고, 이따금 옛날, 元庸의 할아버지와 친근했던 사람으로부터 元庸이 《傷寒論》에 어두운 점을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이후 죽을 힘을 다해 《傷寒論》의 註譯書를 읽고, 또 스스로 고찰했다.

그 후, 상경해서 東郭에게서 배우려했지만, 이미 서거했기때문에 吉益南涯의 제자가 되었다. 南涯의 塾에 있었던 것은 2년이상이었다고 생각된다. 京都에서는 荻野臺洲와 有持桂里, 橘南谿들에게서 의술을 배우고는 郷里로 돌아왔다. 그리고 《三世醫譚》《傷寒論精義外傳》을 썼다.

《三世醫譚》은 상하 2권으로 된 醫學隨想集과 같은 책이다. 각권 제1에 “의사의 제1의 마음가짐은 《傷寒論》이여야 하고, 本朝의 名醫도, 《傷寒論》, 《金匱要略》에 열중했던 사람은 치료를 매우 잘 하게 된다.”고 쓰고, 元庸의 의학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傷寒論精義外傳》은 사부인 吉益南涯의 《傷寒論精義》의 數術을 목적으로 한 상하 2권의 책이고, 精義에 따라 《傷寒論》을 氣血水說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저서 출판은 거의 자비였고 비용도 꽤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배후가 있었던 것일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醫名이 남아있는 것이 가능하다.⁵⁰⁾

19) 尾臺裕堂

幕後末부터 明治 維新에 이르기까지의 일대변환기였던, 古方醫家에서 뛰어난 자는 尾臺裕堂이다. 裕堂은 北越(新潟縣) 漁沼郡 中沼村의 小杉家에서, 寬政 11년(1799)에 태어났다. 幼名은 四郎治이고 이름은 元逸, 字는 土超, 裕堂 또는 蔽雲이라 부르고 통칭 良作이라 했다. 遠祖는 高田藩의 浪士 小杉玄蕃이었고, 2대 이후 계속 醫業에 종사했고, 裕堂의 아버지가 4대째였다.

어려서부터 동작이 날래고 영리한 裕堂을 啓發한 사람은, 가까운 圓通寺의 惟寬禪師였다. 禪師는 江戸駒込의 吉祥寺에서 매우 힘써 일을 이뤄 故山으로 임명되었으며 천하의 명가와도 교류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친교가 있었던 儒家 龜田鵬齋의 추천으로, 裕堂은 文化13년(1816) 江戸의 의사 尾臺淺獄의 門下로 들어가게 되었다. 淺獄은 峯少翁의 門下이다. 裕堂은 淺獄의 門下에 남아 의학을 실제 배우는 한편, 龜田綾瀨에게서 사사받아 經史와 시문을 배웠다. 文政7년(1824) 모친이 늙고, 형도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향하였다. 郷里에서는, 이 신진 청년 의사를 후덕하게 대하고 환자는 문자그대로 문진성시를 이루었다.

그러나, 天保5년(1834) 江戸의 큰 불은 은사였던 尾臺淺獄 일가를 태우고, 逝去라는 비보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갔다. 유족의 요청도 거절하기 어려웠고 생가에서 이탈하여 그 유자녀를 지키기위해 尾臺良作으로 개명하고 學·術을 병행하여 대성하였다. 그 증거는 당시 최대의 榮譽인 德川 大將軍에게 單獨으로 만나고, 侍醫로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文久3년(1863) 65세 때였다. 明治 3년, 72세로 생을 마감하고 谷中三崎北町 觀音寺에 묻혔다.

저서에는 《方伎雜誌》《類聚方廣義》《橘黃醫談》《療難百則》《醫余》《井觀醫言》등이 있다. 《方伎雜誌》는 裕堂의 전 생애에 걸친 의학에 관한 처세관, 어렸을 때의 경험, 치료경험, 취미등 여러 종류의 잡다한 사항이 수록되어있고, 《類聚方廣義》는 東洞의 《類聚方》에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의견을 주석으로 넣은 것이다. 裕堂이 古方에 대한 신념이 확고부동하였던 점은 그 저작에서도 잘 나타나있다.⁵¹⁾

50)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51)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20) 森立之

江戶말기, 고증학자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森立之이다. 立之는 文化4년(1807) 江戶 北八丁堀竹島町에서 출생. 字는 立夫, 처음에는 伊織, 중간에는 養眞, 후에는 養竹이라 불렸다. 왜냐하면 7대에 養竹이고, 6대에도 祖父가 養竹이어서, 본래는 立之의 아버지(養子)가 7대째 養竹을 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방탕하여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立之는 祖父 養竹의 뒤를 잇지 못하고, 7대째에 잇게 되었다. 어머니는 81세까지 장수하였다.

立之는 11세때, 당시 13세인 涉江抽齊에게 배웠다고 하니, 抽齊와의 교제는 매우 길었다. 文政 4년(1821) 祖父 恭忠이 돌아가시고, 그 2년후인 文政 6년에 立之는 抽齊의 스승인 굴지의 考證學者 伊澤蘭軒에게 직접 사사받게 되었다. 抽齊의 많은 문인중에서도 涉江抽齊, 森立之, 岡西玄亭, 清川玄道, 山田樞庭은 蘭門 5哲(5명의 철학자)이라 불렸다.

天保 8년(1837) 31세때 立之의 말을 빌리면 “이유가 있어 인연을 놓쳤다.” 祖母, 母 및 妻子를 동반하여 相模의 땅에 落魄하였다. 落魄時代 12년간은 연구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동안 《遊相醫話》《桂川詩集》을 쓰고 또 《神農本草經》《素問靈樞》《傷寒論》《金匱要略》《扁鵲倉公伝》등에 각각 주를 붙인 것이다.

弘化 5년(1848) 드디어 본가로 귀향을 허락받아, 江戶로 돌아오고, 다음해 1월 醫學館 개강일에 처음으로 廳間列席했다. 安政 원년(1854) 《新農本草經〇註》를 간행하고, 醫學館 강사로 임명받았고, 그해 말에 醫學館 《醫心方》校刊事業에도 조교로 임명받았다. 安政 5년 將軍 家茂의 알현을 허락받고, 御目見醫師에 올랐다. 慶応 4년(1868), 幕府가 무너지고, 醫學館도 폐관되었다.

維新 후 立之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明治 12년에 동지들과 함께 溫知社를 조직했다. 明治 18년 79세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立之의 업적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新農本草經》의 복원 간행과 涉江抽齊등과 공동편찬한 《經籍訪古志》의 간행이다.⁵²⁾

21) 山田業廣

幕後 말기 考證學派의 거봉이며, 明治시대에 들어서 漢方存續運動의 기수이며 溫知社를 결성한 山田業廣의 偉業은, 漢方醫學史上에 빛나는 인물이다. 業廣은 文化 5년(1808) 高崎藩侯 侍醫由之를 아버지로, 深井氏 어머니 사이 장남으로 태어났다. 字는 士勤, 통칭은 昌榮, 號는 樞庭이다.

17세 때, 아버지의 병으로 高崎侯에게 의사로 임명받고, 食祿 25口를 받았다. 文政9년 19세로 朝川善庵에게 유학을 배우는 한편, 伊澤蘭軒에게 의학을 배웠지만, 뜻하지않게 蘭軒이 죽자, 나중에는 多紀元堅에게 배웠다. 또 痘科의 비결은 池田京水에게서 수학하였다. 天保 8년(1837) 30세로 江戶에서 개업. 安政 4년(1857) 50세로, 江戶醫學館의 講師가 되었다. 明治 원년 高崎에게로 옮겨 明治 2년 高崎藩의 醫學校 督學(학사를 감독함)이 되었다. 다음해 의학대 교수로 임명받았다. 明治 4년 廢藩 때문에 그만두었다.

明治 7년 다시 상경, 개업. 明治 12년 동지를 규합하여 溫知社를 창립하고, 초대 社首가 된다. 다음해 10월, 明宮皇子(후에 大正天皇)을 검진하고, 이후 거의 1개월에 걸쳐 투약했다. 明治 14년 1월, 돌연 癘를 발하고 호흡이 약해지고, 3개월 뒤에서거, 향년 74세였다. 후계자 業政은 아버지의 衣鉢(가사와 바리때; 전하여 스승에게서 받는 불도의 오의)을 잘 이어받았다.

森立之가 새긴 《樞庭先生墓碣》비문에 의하면 業廣에게는 門下에 제자가 300명, 저서는 38부, 163권, 醫經經方 모두 주역이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版으로 엮어진 것은 《經方弁》한권뿐이다. 業廣은 어디까지나 그 학술을 자손이나 門下에 전하려고, 그 연구성과를 모아서 책으로 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일러 명예를 얻거나, 初學者에게 오해를 주거나, 무의미한 議論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北京中醫研究園 도서관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金匱要略札記》《金匱要略集注》는 최근 影印復刻되었다.

확실히 불운했다고 할 수 있는 業廣의 업적이 최근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과 재조명되었다는 점이 기쁘다.⁵³⁾ 《傷寒論攷註》를 저술하였다. 大冊이지만 考證에 지나쳐 臨床上 쓰이는 곳이 적

52)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다.⁵⁴⁾

III. 結 論

이상과 같이 일본 한방의학의 古方派 醫家 21인의 生涯를 살펴 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그 당시 한의학의 의료기술을 행하면서 傷寒 처방을 사용한 중국이나 한국의 한의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일본 의가들은 傷寒理論의 단점과 한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다른 의학 유파와의 절충과 일본 의학이 한방의학에서 서양의학으로 넘어가는 時期의 의학 學風에 반대하는 성향이 없었다.

2) 처음에는 古方派에 입문하여 <傷寒論>을 통해 기준과 원칙을 알고나서는 이에 구애를 받지 않았으며 관념론적인 醫學 理論보다는 현실적인 치료를 추구하였다.

3) 이들 醫家の 生涯를 통해 그 당시 일본 의료 사회의 의학교육, 관직, 사제지간의 관계, 學風 등을 엿볼 수 있다.

III. 參考文獻

1.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日本の漢方ち築いた人, 東京都, 平成 6년, 醫聖社.
2. 大塚敬節, 傷寒論解説, 부친, 書苑堂, 1984.
3. 石原明, 入門現代漢方, 東京, 立風書房, 1972.
4. 劉渡舟, 傷寒論辭典, 北京, 解放軍出版社.1988.
5. 金斗鐘, 東西醫學史大綱, 서울, 探求堂, 1981.
6. 潘桂娟 樊正倫, 日本漢方醫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7. 竹山晋一郎, 漢方醫術復興の理論, 東京, 續文堂出版社, 昭和 50年.
8. 石原保秀, 東洋醫學通史, 東京, 自然社, 昭和 54年.

53) 近世漢方醫學書編集委員會, 上掲書

54) 大塚敬節, 上掲書 p.58